

크스님 수행한담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불교는 멧힌것을 풀고 죽은것을 살리는 종교 ‘업장소멸·생사일여’ 그런뜻”

◁새로 짓기 전 봉정암에서 법륜스님과 함께 찍은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도운스님.

고 촛불도 필요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서 답답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묵음을 하려고 해봐요. 그게 어디 마음 먹은대로 됩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산중 선정시무난(山中禪定是無難)이요 대경부 동시위난(對境不動是爲難)이라. 산중에서 참선하여 정에 들기는 쉬운 일인데 모든 경계에 다달아서 흔들림없이 살아나가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이 있나

들이 생기지만 유해하고 사는 데야 어디 같들이 생기겠습니까. 불교에는 모든 원한 멧힌 것을 푸는 해원결연이 있지요. 불교는 푸는 종교예요. 모든 이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망상이 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업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타종교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 같아요. 검은 것을 회게 만들고 흰 것을 검게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마음 속에

죽을 고생들을 많이 했지요. 1백여명이 넘게 산 속에 몰려 죽을 뻔한 것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눈에 빠진 학생들을 업고 밤새도록 쫓아다녔는데 두꺼운 옷 안입고 다녔어요 동상 한번 안걸렸습디다. 되려 산악인들은 죄다 동상에 걸렸지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 뿐이었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불법을 받드는 수행자가 어찌 자신의 목숨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때론 눈 속을 30km 이상 걸을 때도 있었습디다. 기특 교인이었던 산악인 박철암씨는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자기들은 아마추어고 내가 프로산악인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산을 잘 탄다는 거였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산을 정복하려 오는 것이지만 산에서 사는 나는 산을 나와 따로 구별하지 않고 살았습디다. 산과 내가 한 몸이었지요. 분별이 생기면 수행에 걸림이 되는 것이지요. 산 때문에 내가 있고 나로 인해 산이 있었죠. 이게 바로 연기의 법칙에 다름 아닙니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도 멸한다는 불교 본연의 진리인 연기법이지요. 이 연기법을 알아야 불교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도 살생 화내고 쩡그리면 세포도 죽습니다”

습니다. 이듬해 겨울에는 봉정암으로 올라가 2년간 혼자 지냈어요. 봉정암에 머물면서 백일기도를 했는데 영가 천도 위령기도였어요. 봉정암은 6·25 때 수복지구였습디다. 설악산은 치열한 전투지여서 오세암 일대에는 6·25 때 죽은 유해들이 많았어요. 낮에는 유해들을 모아 다비해주고 (반야심경)을 독송해 줬습디다. 하루는 절에 찾아온 보살이 이 사실을 듣고 선뜻 50만원을 보내줘서 인부를 사서 유해를 한데 모아 다비를 해줬지요. 일종의 천도제였습디다. 함께 왔던 보살 두 분은 남아서 백일기도를 하겠다고 해서 낮에는 유해를 치우고 밤에는 보살들과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디다. 우스운 말이지만 산 사람하고 살면 갈

원수라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진실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디다. ‘원수를 사랑하라’ 보다는 ‘원수를 해결하라’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미운 마음을 다 풀어 보세요. 원수가 어디 있었습디니까.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입니다. 남을 괴롭히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살생입니다. 화를 내고 쩡그리면 세포도 스트레스를 받아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생을 해야지요. 설악산에서 죽은 사람 영혼 천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길입디다.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이 불교입디다. ‘생사일여(生一死一如)’가 바로 그런 뜻입디다. 봉정암에 있을 때 겨울이면 산악인들과 대학 산악부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60년대만 해도 산악 장비가 빈약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법칙이자 부처님이 설하신 인연도리를 그대로 함축하고 있는 진리입디다. 그 후에 백담사로 내려와서 빈터만 남아있던 오세암을 새로 건축했습디다. 이타에 절이 있으면 수행자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나아 집이 있든 없든 살았지만 혼자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욕심인 것 같아서 오세암을 지웠습디다. 기와도 만들고 나무도 베었지요. 사실 나무를 함부로 베면 법에 걸리거든요. 근데 난 부처님께 허락받았다는 생각에 겁이 없습디다. 수행에서 나온 용기라고 생각해요. 일개 뉘들이 때마침 합디다. 오래 살면 시주가 들어오는데 그러다보면 물욕에 빠지기 쉽습디다. 이는 여지껏 좋은 일 한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디다.

나의 수행일기



〈부산 동백아트센터 관장〉

나는 우리나라 금융사상 최초로 퇴출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동남은행 해운대 지점장직을 지난해 6월까지 맡았었다. 그러나 내 생을 걸고 투신했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약 4개월 동안 휴식기간을 거치면서 11월부터 부산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자리잡은 미술관 동백아트센터의 관장직을 맡게 됐다. 은행과 미술관이라는 그 직업적 연결고리가 잘 맞지 않는 생경스런 변화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 화려한(?) 변신도 모두가 부처님 그늘아래서 이루어진 길이었음을 고백한다. 고등학교시절부터 나는 산행을 해왔다. 결혼후에도 계속해서 나홀로 주말산행은 아이들이 자라자 가족들의 불평을 샀고, 급기야 한달에 한주만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적 답사 여행을 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후

채 스쳐 지나만 가고 있다. 나는 직장인 문을 닫은 이후 마음의 정리도 할 겸 지금껏 모아둔 슬라이드 오천여장을 가지고, 부산근교 작은 암자인 수암사에 들어갔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양식인 석탑을 주제로 한 한국의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탑과는 도자기, 회화, 서예 및 전직류들과는 달리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깊은 수장고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곳이든 노천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즉시성이 있다. 이러한 탑과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바로 볼 수 있는 논문 뜨게 해줄 수 있다면 나 자신이 느끼던 그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자라자 가족들의 불평을 샀고, 급기야 한달에 한주만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적 답사 여행을 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후

불교유적 답사로 신심 다지고 석조미술 우수성 대중과 공유

전국의 사찰과 암자, 폐사지 그 곳에 있는 석탑, 부도탑, 석등, 당간지주, 석조, 마애불 등 성보를 찾아 다니지 10년. 여행 때마다 목적지에 대한 불교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에 대한 사전공부를 했고, 그곳에서 슬라이드사진을 촬영했다. 그 사진들을 여행후 가족이 함께 모여 환등기로 다시 비춰보는 즐거움이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행복의 시간들이었고, 나름대로 불자로서의 신심을 발현시키는 소중한 기회였다. 천년의 숨결을 이기속에 감춘채 석양을 받고 선 경주 장항리 5층석탑이 있는 폐사지에서, 탑신과 지대석이 나뉘고 있는 건봉사 부도밭에서, 경주 남산 곳곳에서 만나는 목없는 석불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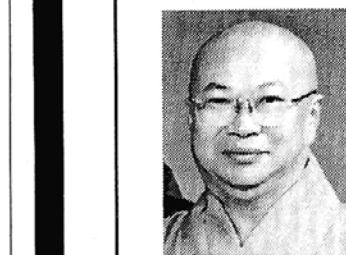
해운대 달맞이 언덕문화 관광페스티벌 행사에 일원으로 일반 관람자를 상대로한 ‘한국의 석탑과 전통문화’란 제목의 슬라이드 강의를 우선해 맡게됐다. 나는 이 강의를 통해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맞았다는 것을 강연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로 부터 확인했다. 탑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되고, 우리 석조미술의 우수성을 짧은 시간이었으나 이해했다고 하니 나로서는 무척 기쁜일이였다. 또한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술관의 대표(前 이수정 관장)도 나의 탑과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를 관장으로 천거했다는 뒷얘기를 들었음에 10여년간 불교유적을 찾아다녔던 지난날의 행보가 모두 부처님의 손길따라 움직이고 부처님의 크나큰 공덕의 그늘이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제2의 인생을 열어준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는 우리 전통예술의 바탕위에 우뚝 서 있는 불교문화의 배워나기며,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확인했다. 탑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되고, 우리 석조미술의 우수성을 짧은 시간이었으나 이해했다고 하니 나로서는 무척 기쁜일이였다. 또한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술관의 대표(前 이수정 관장)도 나의 탑과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를 관장으로 천거했다는 뒷얘기를 들었음에 10여년간 불교유적을 찾아다녔던 지난날의 행보가 모두 부처님의 손길따라 움직이고 부처님의 크나큰 공덕의 그늘이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제2의 인생을 열어준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는 우리 전통예술의 바탕위에 우뚝 서 있는 불교문화의 배워나기며,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 할 것이다.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 등 10여종의 참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외에 10여종의 참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크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범륜 합장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들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체실험 결과 입증된 「세시미들」 성분을 대량 추출한 새로운 기능성식품입니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술선식(松仙食)」, 「술효소정액(松醇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정성심 올림